

A graphic of a blue square with the letters 'WCC' in white, set against a grey background with a white arrow pointing towards it.

WCC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부산총회 가이드북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A graphic featuring a blue square with the letters 'WCC' in white, set against a light blue background with a white arrow pointing towards it.

WCC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부산총회 가이드북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인사말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2013년은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부산총회가 열리는 해입니다. 지난 2009년 8월 30일에 WCC가 제10차 총회를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이래, 한국교회는 WCC제10차총회한국준비위원회(KHC)를 조직하고 이 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총회도 제94회기부터 총회 임원회와 WCC제10차총회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세미나 개최, 에큐메니칼 정책 세미나 개최, 관련 책자와 안내자료 발간 등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제 WCC 제10차 부산총회의 해를 맞이하여 성령강림주일인 5월 19일을 기하여 전국교회가 일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용 동영상, WCC 총회주일 예배모범, 교육용 PPT, 예배 설교자료집 등을 형제교회들이 함께 작성하여 배포하면서, WCC 부산총회와 관련된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책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북을 통해서 전국의 목회자들이 WCC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정의·평화의 소식’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3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WCC제10총회준비위원장 **김동엽**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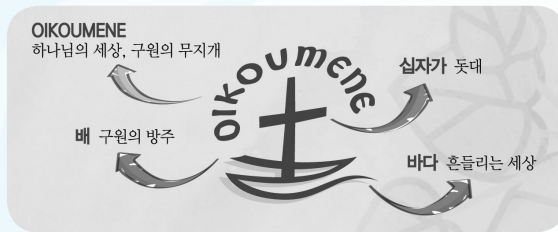
— 목 차 —

인사말씀	2
목 차	3
WCC는 ‘하나됨’을 지향	4
WCC 회원교회	5
WCC의 형성과정	6
WCC 비전	8
WCC의 기도 : 부산으로 가는 길	11
WCC 역대총회	12
WCC 제10차 부산총회 소개	14
WCC 제10차 부산총회 일정	16
WCC 제10차 부산총회 주요 프로그램	18
WCC 제10차 부산총회 의미	20
WCC 제10차 부산총회와 노회 · 교회	22
WCC 총회주일 안내	26
WCC에 대한 오해와 진실	28
WCC 준비와 관계된 기관 연락처	32
WCC 제10차 총회 관련 자료 소개	33

세 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는 “성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주로 고백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의 교제”입니다.

WCC는 ‘하나됨’ 을 지향

세계교회협의회는 세계에 흩어진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대표적 기구입니다. ‘에큐메니칼(Ecumenical)’은 헬라어 ‘오이쿠메네’(Oikoumene)에서 시작됐으며, ‘만물이 살고 있는 온 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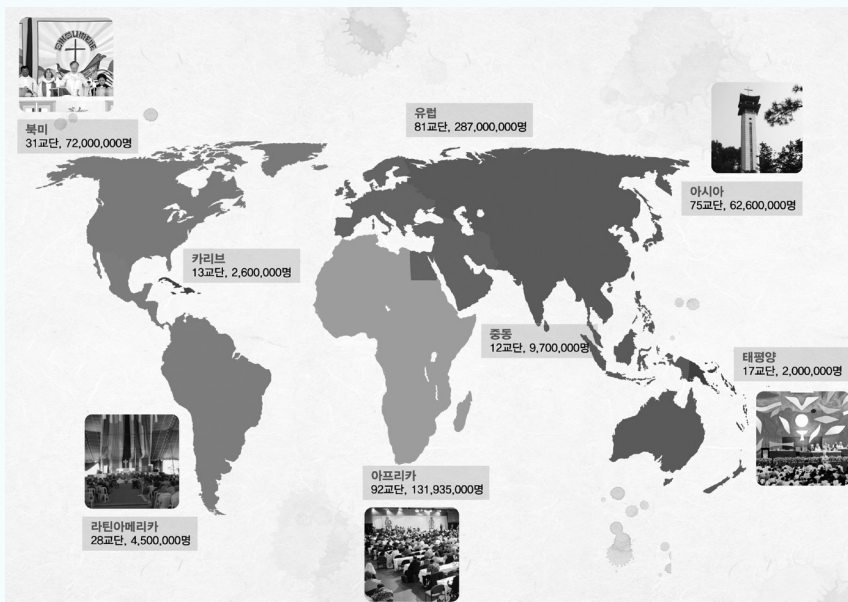


오이쿠메네에 뿌리를 두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됨’을 지향하는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개념이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성취하기 위한 교회의 신앙 고백적 응답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세계대전으로 인류가 극심한 분열의 아픔을 경험하던 20세기 초엽에 하나님 안에서 만물의 일치를 위하여 먼저 교회가 일치해야 함을 자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조직되어 ‘일치’, ‘공공 증거’, ‘기독교 봉사’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WCC 회원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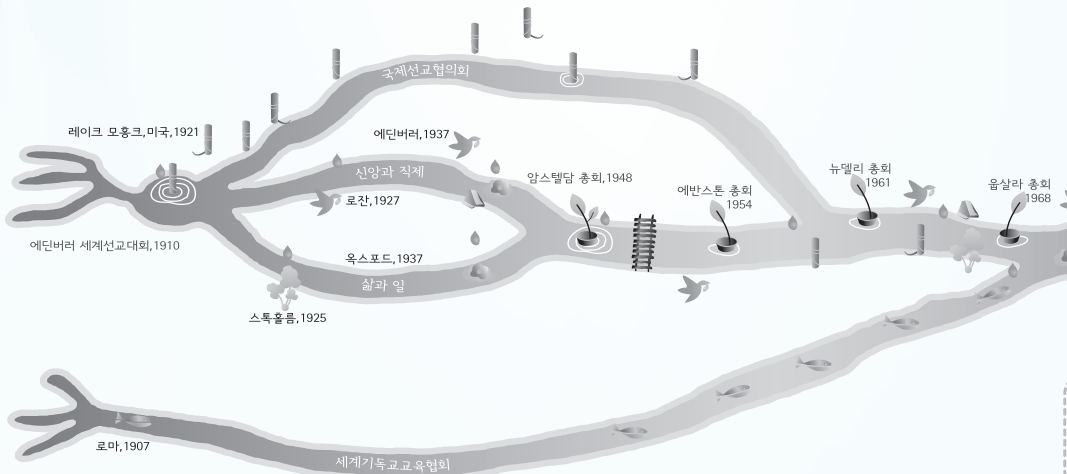
세계교회협의회는 전 세계 110개국의 349개 회원교회, 약 5억 6천만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독교 협의회로서 세계에서 가장 폭넓고 포괄적인 에큐메니칼 기구입니다. 정교회들과,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성공회, 침례교회, 루터교회, 감리교회, 개혁신교회 그리고 많은 연합교회와 독립교회들이 세계교회협의회의 회원교회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순절 교회들도 회원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이 세계교회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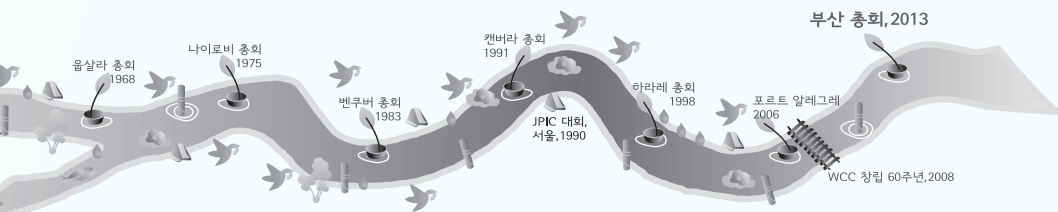
세계교회협의회 형성과정

세계교회협의회가 형성되는 과정에는 세 갈래 에큐메니칼 운동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과 교리상의 상호이해와 일치를 위한 운동입니다. 교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며, 교회들의 신학적인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27년 로잔에서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세계 평화를 위한 사회 참여 운동입니다. 1914년 제1차 세계전쟁이 발발하자 스웨덴 루터교회의 대주교 죄더블롬의 주도적인 역할로, 세계평화를 위한 “실천적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리는 갈라지게 하지만, 봉사는 하나 되게 한다.”는 신념을 따라 1925년 스톡홀름에서 “삶과 봉사”(Life and Work)가 조직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운동입니다. “신앙과 직제”와 “삶과 봉사”, 이 두 운동의 원동력인 19세기 복음전도 운동은 1910년 에든버러의 세계선교대회에서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세대 안에 세계를 복음화하자”는 표어처럼, 복음 전도의 결실을 위하여 국가와 교파, 그리고 인종차별의 장벽을 초월하여 여러 선교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고 활동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21년 **국제선교협의회(IMC)**가 창설되었습니다. 국제선교협의회는 1961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서 하나로 합쳐졌고, 세계기독교교육협회가 1971년 세계교회협의회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교회협의회**는 “하나”(One)의, “거룩”(Holy)하고, “공교회적”(Catholic), “사도적”(Apostolic) 전통을 지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심벌 설명

 신앙과 직제위원회 회의

 세계선교대회

 삶과 봉사
(교회와 사회 세계대회)

 WCC 총회

세계교회협의회(WCC)의 비전

증거 (witness)

세계교회협의회는 평화와 정의, 하나님의 창조 보전을 위한 선교와 전도 사역에 힘씁니다.

a. 공적인 증거: 가난한 이들의 벗 되기

세계교회협의회는 교회가 사회적 불의와 폭력, 전쟁, 가난, 환경파괴에 대항하며, 선지자적 목소리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이를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폭력극복10년 운동을 범세계적으로 전개하였고, 중동지역의 안정과 평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의 문제와 환경파괴에 민감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세계교회협의회는 한국전쟁의 종식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합군의 파견을 유엔에 가장 먼저 권고하였으며,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난민 구호와 전쟁 후 복구 사업을 위해 막대한 물량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세계교회협의회는 1984년 일본 도잔소(Tozanso)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정의협의회”를 개최하여, 남과 북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만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이후로도 계속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고, 지난 2009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주간에는 세계교회협의

회 모든 회원교회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연대를 다짐하였습니다.

b. 교육과 에큐메니칼 운동의 기반형성

세계교회협의회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 연구를 위한 에큐메니칼 교육기관을 보세이(Bossey)에 설립하여 수많은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세계 교회 지도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3세계의 많은 젊은 인재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어, 교회와 사회 발전의 기틀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신학과 운동과 관련한 수많은 연구 자료들을 개발하고 관련 서적들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c.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에베소서 4장 6절)는 말씀을 바탕으로 세계교회협의회는 다른 종교들과, 인류 공동체와,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와의 평화를 위한 열린 대화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 속에서 세계교회협의회는 다른 종교와 평화와 공존의 관계를 구축함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길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종교간의 대화는 타종교가 다수종교인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일치 (unity)

세계교회협의회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의 삶 속에서 가시적인 일치를 추구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영적인 삶을 공유하며, 신학적인 성찰을 하도록 돕습니다.

a. WCC와 21세기 에큐메니칼 운동

세계교회협의회는 세계 교회들과 다른 에큐메니칼 기구들과 함께 교회들의 가시적인 일치를 위한 노력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를 향한 에큐메니칼 비전을 제시하고, 신학적 연구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여성,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력 개발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b. 일치, 선교, 전도와 영성

세계교회협의회는 회원교회들이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며, 다양한 선교적 역량을 발전시켜 온 인류가 함께 조화로운 삶을 누리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봉사 (Christian service)

세계교회협의회는 오늘날 세계의 소외된 이웃들과 약한 자들을 섬기고 지원하는 데 교회들과 함께 힘을 모읍니다.

a. 정의, 디아코니아와 창조질서에 대한 책임

WCC는 빈곤, 인권, 정의의 문제에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사회참여’의 신학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을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빈민, 이주노동자, 소수 민족 등)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이들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WCC 연 예산의 23% 이상이 이 분야의 선교 사업에 배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WCC가 사회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한 디아코니아(사회봉사) 사역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와 물 부족 문제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세계에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WCC의 기도 : 부산으로 가는 길

1. 부산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과 겸허하게 동행하도록 하소서.
2. 부산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모이고 기도하고, 숙고하게 하소서.
3. 부산으로 가는 길에 우리를 성령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세계교회협의회 역대 총회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는 세계교회협의회 정책을 세우고 사업을 평가하는 최고의 입법기관입니다. WCC총회는 예루살렘 공의회(행15장)의 성서적 전통을 근대 역사 속에서 이어가고 있는 세계적 에큐메니칼 공의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속에서도 역사하심을 고백함으로 하나가 되고 이런 부름에 응답하여 이방인 선교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WCC총회도 세계교회가 함께 신앙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고 시대적 도전 앞에서 공동 선교의 과제를 확인하고 함께 헌신하는 신앙적 모임입니다.

매 7년 내지 8년 마다 모이는 총회는 회원교회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데, 목회자와 평신도 여성과 남성, 청년의 동등한 참여로 개최됩니다. 총회는 6~7명의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단을 구성하고 중앙 위원회 위원들(150여명)을 선출하여 매년 회의를 열어 다음 총회 때까지의 세계교회협의회 주요 사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제10차 총회에는 349개 회원교단으로부터 약 5,000여명의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WCC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사항**이 다루어집니다.

- 1) 주제를 통한 교회와 세상을 향한 신학적 선교과제 성찰
- 2) 세계교회의 교제와 일치
- 3) 세상을 향한 세계교회의 공동증언
- 4) 차기총회 때까지의 주요정책 결정
- 5) 150명의 중앙위원 선출

■ WCC 역대 총회(1~9차) 개최지와 주제

1차	1948 암스텔담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섭리 (Man's Disorder and God's Design)
2차	1954 에반스톤	그리스도 - 세상의 희망 (Christ - The Hope of the World)
3차	1961 뉴델리	예수 그리스도 - 세상의 빛 (Jesus Christ - The Light of the World)
4차	1968 읍살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Behold, I Make All Things New)
5차	1975 나이로비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롭게 하시며 하나되게 하신다 (Jesus Christ Frees and Unites)
6차	1983 벤쿠버	예수 그리스도 - 세상의 생명 (Jesus Christ - The Life of the World)
7차	1991 캔버라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Come, Holy Spirit - Renew the Whole Creation)
8차	1998 하라레	하나님께 돌아와 소망 중에 기뻐하라 (Turn to God - Rejoice in Hope)
9차	2006 포르토 알레그레	하나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소서 (God, in your Grace, Transform the World)
10차	2013 부산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인도하소서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WCC 제10차 부산총회 소개

WCC 제10차 총회 의의

2013년 세계교회의 눈과 귀는 한국, 부산으로 모일 것 입니다. WCC 제 10차 총회는 짧은 선교역사를 가진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한반도에 초청한 신앙축제의 마당입니다. 이번 총회는 제3차 총회(1961, 뉴델리)에 이어 두 번째로 아시아에서 열리는 총회입니다. 이번 제10차 총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교회의 교제의 폭을 넓히고 경제위기, 생태위기, 영적위기 등 21세기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부름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충만한 문명을 향한 복음적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사적 총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교회협의회 전통에 따라 제10차 총회보다 ‘부산총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 앞으로 부산과 한국이 세계 교회에 깊이 각인되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 WCC 제10차 총회 주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 주제성구 : 성경말씀 이사야 42:1~4


1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2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

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 부 제

- 믿음 안에서 함께 누리는 생명 : 교회 일치와 선교
- 소망 안에서 함께 누리는 생명: 세계의 정의, 평화, 화해
- 사랑 안에서 함께 누리는 생명: 공동의 미래

■ 로고 설명




평화의새 평화를 온 땅에 충만하게 하고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나타냅니다.

작은나무 생명을 불러오고 우리의 희망을 발산케 하며 우리의 영이 솟아올라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 위 사막과 마른 땅, 우리의 발목을 매고 있는 사슬을 의미합니다.

■ 총회 장소

- 주 소 612-70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번지
- 대표전화 (051)740-7300
- 홈페이지 <http://www.bexco.co.kr/>
- 협력기관  **부산관광컨벤션뷰로**
BUSAN CONVENTION & VISITORS BUREAU



WCC 제10차 부산총회 일정

날짜 시간	10/30(수)	10/31(목)	11/1(금)	11/2(토)	11/3(주일)
08:30 09:00		기도회	기도회	기도회	한국교회 예배참여
09:15 10:15		성경공부	성경공부	한국교회들과 함께하는 평화관련 에큐메니칼 순례	
10:15		휴 식	휴 식		
10:45 12:15	개회예배	총회주제	아시아 지역회의		
12:15	점 심	점 심	점 심		
14:00 15:30	개막식	전체회의	전체회의		
15:30	휴 식	휴 식	휴 식		
16:00 17:30	회장 및 총무보고	에큐메니칼 대화	에큐메니칼 대화	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
17:30	휴 식	휴 식	휴 식		
18:00 19:30	총회주제 전체회의	고백적 회의	지역별 회의	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
19:45 20:15	기도회	기도회	기도회		
20:30	저 녁	저 녁	저 녁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가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라는 주제 아래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날짜 시간	11/4(월)	11/5(화)	11/6(수)	11/7(목)	11/8(금)
08:30 09:00	기도회	기도회	기도회	기도회	기도회
09:15 10:15	성경공부	성경공부	성경공부	성경공부	위원회 보고
10:15	휴 식	휴 식	휴 식	휴 식	휴 식
10:45 12:15	선교관련 전체회의	연합관련 전체회의	정의관련 전체회의	평화관련 전체회의	폐회 전체회의 or 보고
12:15	점 심	점 심	점 심	점 심	점 심
14:00 15:30	마당 프로그램 (워크숍)	마당 프로그램 (워크숍)	마당 프로그램 (워크숍)	마당 프로그램 (워크숍)	파송예배
15:30	휴 식	휴 식	휴 식	휴 식	휴 식
16:00 17:30	에큐메니칼 대화	에큐메니칼 대화	위원회 보고	위원회 보고	WCC 중앙위원회
17:30	휴 식	휴 식	휴 식	휴 식	
18:00 19:30	선 거	위원회 보고	위원회 보고	고해 회의	
19:45 20:15	기도회	기도회	한국교회와 만찬 및 기도회	기도회	
20:30	저 녁	저 녁 (중앙위원회)		저 녁 (중앙위원회)	

WCC 제10차 부산총회의 주요 프로그램

1	예배와 성경공부	총회기간 동안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인도하소서”란 기도문형태의 주제에 따라 개회예배, 아침예배, 저녁예배, 폐회예배 등 다양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모든 예배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총회는 한국교회의 새벽기도와도 함께 합니다. 아침예배후 참가자를 위한 소그룹 성경공부가 매일 진행됩니다.
2	전체회의 및 회무	오전과 오후에는 주제강연 및 총대가 참여하는 회무가 진행됩니다. 총회에 등록된 방문자에 한해 방청할 수 있습니다.
3	에큐메니칼 대화	21세기 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의 공동관심사에 관한 심도있는 대화모임이 조직됩니다.
4	마 당	<p>한국의 전통 공간인 ‘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교회의 다양한 관심사가 전시회, 워크샵, 이벤트 등으로 다루어집니다. 이 ‘마당’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샵 – 총 60개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워크샵이 총회장소인 벅스코를 중심으로 열립니다. ■ 전시회 – 전 세계의 이슈를 다루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 부대행사 – 소무대를 중심으로 각종 공연과 발표회가 열립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부산총회의 주요 프로그램 및 행사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5	한국교회 방문	2013년 11월 2일(토)과 3일(주일)에 총회 참가자들이 한국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11월 3일(주일) 저녁에 한국의 밤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6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행사	세계교회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기 위한 평화열차, 평화협정 등의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7	사전대회	여성, 청년, 장애우, 원주민 등 네 개의 주제별 사전대회가 2013년 10월 28일(월)부터 30일(수) 오전까지 진행됩니다.
8	세계 에큐메니칼 신학원 (GETI)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선발된 약 200여명의 신학생들로 구성된 “세계 에큐메니칼 신학원” 이 총회 기간 중 열립니다.
9	한국 에큐메니칼 신학원 (KETI)	한국의 각 교파 신학생들과 목회 후보생 200명이 본 교단 부산장신대 캠퍼스에 모여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며, 총회를 참관합니다.

WCC 제10차 총회의 의미

“2013년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 이제 21세기 세계교회 운동의 중심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교회는 대부분 식민지 시대에 서구 선교사들을 통하여 서구 교회의 신앙고백과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3대 종교인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의 발상지인 아시아에서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아시아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 종교, 그리고 민족적 의식이 함께 어우러져 아시아 교회만의 독특한 신학과 신앙고백, 기독교전통이 발전해 왔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의 한국 유치를 통하여 아시아의 영성과 기독교 전통을 전 세계 교회들과 함께 나누고, 또한 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선교적 과제들(경제, 사회, 정치적 문제들, 종교 간 대화와 평화, 빈곤, 경제정의, 환경, 민족/국가 간의 갈등과 대립, 폭력극복 등)을 전 세계 교회들이 함께 고민하고, 더 나아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동력을 모을 수 있습니다.

■ 한국교회들의 일치와 연대를 이끍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교회 성장과 선교의 열매들을 결실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아직도 진보와 보수, 에큐메니칼과 에반젤리칼(복음주의)로 나뉘어져 있으며, 개신교회와 카톨릭 교회와의 교류와 협력이 아직도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세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의 한국 개최를 통하여, 한국교회는 진보와 보수의 이해를 넘어, 한국교회의 깊은 영성과 신앙고백을 세계 교회들과 함께 나누고, 한국교회의 선교적 역량과 풍부한 그리고 준비된 인적, 물적 자원을 세계 교회의 선교와 봉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위하여 한국 교회는 일치와 협력, 연대를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세계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합니다.**

우리의 땅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이제 남과 북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이루어내야 하는 공동의 신앙 과제입니다.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화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세계 교회들의 기도와 연대를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 한국 총회를 통하여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합니다.

■ **“복음주의 에큐메니칼” 선교를 실천합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한국교회는 유일하게 선교 받은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신실한 영성과 선교의 열정, 섬김과 나눔의 사역에 세계 교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 한국 총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복음주의 에큐메니칼” 선교를 세계 교회와 함께 실천할 수 있습니다.

WCC 제10차 총회 준비과정에서 한국교회(총회, 노회와 교회)가 할 일

■ WCC 부산총회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WCC 부산총회는 세계교회가 시대의 도전 앞에 공동의 선교 과제를 확인하고 함께 헌신하는 신앙의 축제입니다.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정교회 등 한국의 5개 WCC 회원교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함께 총회를 준비하고 있고 구세군 한국정교회, 대한성서공회에서도 총대를 파견합니다.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약 1,50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총회를 돕게 됩니다. 부산장신대는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도록 도울 예정이고, 호남신학대학은 약 200여명의 신학자와 신학생을 초청하는 주말 프로그램을 가질 예정입니다.

WCC 본부는 누구나 총회를 방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약간의 참가비를 부담하면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가 등록을 할 수 있고, WCC 총회를 방문하는 해외 교회의 대표를 교회로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WCC 총회 방문단을 구성해 보면 어떨까요? 적은 수라도 대표를 선정해서 참가하도록 교회가 돕고, 참가한 분들이 교회 앞에 보고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한국어가 총회의 공용 언어 중의 하나로 채택되어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니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해외 교회 대표를 주일 학교에 초대해서 신앙 체험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도 교회 공동체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기도로 중보하는 것은 아주 큰 참여의 방법이 됩니다.

■ 총회는 WCC 부산 총회를 어떻게 준비해 왔나?

본 교단 총회는 2009년 8월에 WCC 제10차 총회 개최지가 부산으로 결정된 뒤, 그해 11월에 제94회기 WCC제10차총회준비위원회(위원장 이용남 목사)를 조직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 5월과 6월에는 전국 5개 지역에서 “WCC 제10차 총회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일제히 WCC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WCC 제10차 총회를 소개하는 2권의 책자를 발행하였습니다. 또 매 회기마다 WCC제10차총회준비위원회(제95회기 위원장 이승영 목사, 제96회기 위원장 고시영 목사, 제97회기 위원장 김동엽 목사)를 조직하고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총회를 중심으로 에큐메니칼 정책 세미나 개최, 부산 경남지역 7개 노회장 연석회의 개최, WCC 총무 일행 영접, 부산장신대학교와 영남신학대학교의 WCC 모의총회 개최, 총회장 손달익 목사의 WCC 총무 트베이트 목사 방문 회담 등의 사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수의 본 교단 인사들이 WCC제10차총회한국준비위원회(KHC)에 참여하여 준비과정을 도왔습니다.

총회는 “WCC 제10차 총회의 해”인 2013년을 맞이하여 마무리 준비를 도우며, 국내 회원교단들과 협력하여 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의 참여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WCC 총회를 위해 기도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 노회는 WCC 부산총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12년 12월에 열린 제97회기 4차 총회 임원회는 본 교단 산하 65개 노회가 2013년 봄 노회 시에 WCC 총회를 위한 특별 순서를 배정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 전국의 각 노회가 일제히 WCC 부산총회와 관련된 특강을 듣고, (2) WCC 제10차 총회 홍보동영상을 시청하며, (3) WCC 부산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총회WCC제10차총회준비위원회는 ‘WCC 총회와 에큐메니즘’을 강의할 특강 강사 명단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각 노회로 배포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총회WCC제10차총회준비위원회는 2013년 봄

노회를 마친 뒤에 각 지역의 노회협의회가 WCC 부산총회와 관련된 특별 집회를 개최하도록 제97회기 6차 총회 임원회가 결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회가 요청하는 일 외에 노회가 WCC 총회 준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광주지역의 세 노회는 지역의 기장 노회와 감리교 지방회와 협력하여 광주지역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WCC 총회 기간 중에 호남신학대학교를 방문할 해외 신학자와 신학생을 영접하기로 하는 한편 지역 신학생들의 WCC 총회 참여를 격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각 교회는 WCC 부산총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2013년 1월에 개최된 제97회기 5차 총회 임원회는 오는 5월 19일 성령강림주일을 “WCC 총회주일”로 정하고 전국교회가 일제히 부산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월 24일(주일)을 WCC 총회주일로 지키고,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우리와 같이 5월 19일(성령강림주일)을 WCC 총회주일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예배용 동영상 제작, 모범 설교집 제작, 성경공부 자료 제작, 포스터 제작, 현수막용 컴퓨터 파일 총회 홈페이지 게시 등의 실무를 국내 WCC 회원교단들이 연합하여 나누어서 준비하였습니다. WCC 부산총회가 한국교회의 연합정신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 가운데 교회 형편에 따라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 동참하여 기도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 (1) 2013년 5월 19일(성령강림주일)을 WCC 총회주일로 지키고 WCC 부산총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 (2) 성령강림주일을 전후하여 금요심야기도회나 수요기도회를 이용하여 WCC 부산총회를 위한 특별집회를 갖고, 강사를 초청하여 교인들에게 WCC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는 일. 형식은 특강, 세미나, 기도회 등 다양하게 취할 수 있음.

- (3) 교회 지도자들이 - 목회자, 당회원, 남선교회 여전도회 청년회 임원 등 - WCC 총회에 등록하여 참관하거나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돕는 일.
- (4) WCC 총회에 참가한 해외 참가자를 주말(11월 2일과 3일)을 이용하여 교회로 초청하고 교인들과 교류하거나 주일예배에서 설교하게 하는 일. 청년이나 여성대표를 초청하여 청년회와 여전도회가 교류하게 할 수 있고, 주일학교를 방문하여 한국교회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나눌 수 있음.
- (5) 지역의 청년회나 여전도회가 연합하여 특별집회를 갖는 일. 이 때 부활절연합예배와 같이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집회를 가질 수 있음.
- (6) 7월 27일 무렵에 부산에서 개최될 한국 참가자 사전대회에 참가하는 일.
- (7) 교회 예배나 집회 때에 WCC 총회나 세계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우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도록 돕는 일.

WCC 총회주일(2013.5.19)에 대한 안내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라는 주제 아래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됩니다.

130여년의 짧은 기독교의 역사를 지닌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섬기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을 목숨을 내어준 선교사들의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며 한국교회도 WCC 부산 제10차 총회로 모이는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WCC 제10차 부산 총회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전국 교회가 2013년 5월 19일 성령강림주일에 함께 기도하고 합니다.

각 교회에서 WCC 제10차 총회를 위해 아래의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도제목 -

1. WCC 제10차 총회(2013.10.30~11.8)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2. 한국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3. 동북아시아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4. 세계 여러 분쟁지역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

* WCC 총회주일에 사용하실 자료는 총회 홈페이지와 WCC CD(전국 교회 배포)에 있사오니 참고하여 각 교회와 노회 및 모임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WCC 주일 예배 모범안, WCC 홍보 동영상, WCC 소개 PPT, 학술 및 기타 자료 포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제 97회 총회 주제: 그리스도인, 백성들이여 - 1.기쁜인 0들의 벗 2.다음세대와 벗 3.강아인의 벗 4.다문화가족의 벗 5.북한동포의 벗 - (0225-40, 레19-18)

행정지원본부

110-47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05호

☎ (02) 745-46405(9224) 전송 (02) 6008-2982 담당 : 이선에 전도사

문서 번호 : 예장총 제 97 - 533 호

시행일자 : 2013. 02. 21.

수 신 : 노회장

참 조 : 서기

제 목 : WCC 제10차 총회를 위한 기도 주일 안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 아래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 세계 교회들이 하나 됨을 추구하며 현 110개국 349개 교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의 더 위에 형성한 협의회적 친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0차 부산 총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와 성경공부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의 영적 유산인 새벽기도회로 매일을 시작하는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WCC 제10차 부산 총회가 하나님의 은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전국 교회가 함께 2013년 5월 19일(성령강림주일)에 기도하고자 하오니 각 노회에서는 산하 교회들에게 “WCC 제10차 총회를 위한 기도 주일”을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WCC 제10차 총회를 위한 기도주일

2. 날짜: 2013년 05월 19일 (성령강림주일)

3. 요청사항:

가. 각 노회에서는 노회 산하 교회들에게 WCC 제10차 총회를 위한 기도주일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회 본부에서 3월 초순 경 WCC 제10차 총회를 위한 기도주일에 사용할 수 있는 WCC 주일예배 설교자료집(책자)과 자료CD(설교집, PPT자료, 홍보동영상, 성경공부자료, WCC 관련 학술문서)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봄 노회 때 산하 교회에 배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 총회 기획국 이선에 전도사(02-745-4640/ 내선9224). 끝.

총 회 장 손 달
서 기 류 영



WCC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WCC의 신앙고백이 의심스럽다?

WCC는 헌장 제1조에서 “세계교회협의회는 성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주로 고백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의 교제(Fellowship, Koinonia)이다.”라고 그 신앙적 근거와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WCC는 같은 헌장에서 “한 믿음, 한 성례전적 교제 안에서의 가시적 일치, 예배와 공동생활, 세상을 향해 함께 증언하고 봉사함으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과 기능을 밝히고 있습니다. WCC는 이처럼 성경,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위에 굳게 선 세계교회 연합체입니다. WCC가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성취하기 위한 세계교회의 공동 노력입니다.

WCC에는 기독교를 사칭하는 온갖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 예수를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 단체도 들어와 있지 않느냐고 극단적인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터무니없다는 것은 WCC의 회원교단이 되는 과정만 살펴봐도 드러납니다. WCC의 회원이 되려면 먼저 헌장 제1조에 해당하는 교단의 신앙고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앙위원회 회원영입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통과되면 해당 국가에 이미 회원이 되어 있는 교단에 신청교단에 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만일 입회신청을 한 교단이 정당한 교단이 아니라면 WCC는 결코 그 교단을 회

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WCC의 신앙고백은 분명합니다.

2. WCC는 선교에는 관심이 없다?

1910년 에든버러(Edinburgh)에서 선교와 일치를 위해 전 세계교회가 함께 모인 세계선교대회가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직접적 배경인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도 WCC안에는 에든버러 대회의 전통을 이어오는 “선교와 전도위원회”(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가 지속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무국에는 ‘선교와 전도 일치국’이 설치되어 세계교회의 선교와 전도에 대한 지원과 협력, 선교신학의 성찰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WCC 선교와 전도위원회는 복음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증언되어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WCC는 총회와 별도로 총회만큼이나 큰 규모로 진행되는 양대 대회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기독교 교리를 다루는 신앙과 직제 대회이고 다른 하나가 선교를 다루는 선교와 전도 대회입니다. 2013년 부산총회에서도 새로운 에큐메니칼 선교선언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3. WCC는 용공이다?

WCC는 교회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념도 지향한 적이 없습니다. WCC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WCC는 냉전시대 때 공산체제 속에 있는 교회도 회원교회로 받아들였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떤 정치체제 속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용공이라고 한다면 그 주장은 복음을 이념 아래에 두는 셈이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은 공산체제 아래 있던 교회들의 보존을 위해 WCC가 엄청나게 노력했고 그 노력으로 공산권이 무너졌을 때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북한 교회가 세계교회와 연결되는 데도 WCC가 정치적 장벽을 무릅쓰고 교제를 시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

니다. 한편, WCC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WCC중앙위원회를 통해 “우리는 유엔이 세계질서의 도구로서 이 침략에 맞서서 신속한 결정을 취해 줄 것과 모든 회원 국가가 지지하는 경찰 조치를 허락해 줄 것을 권고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WCC의 용공시비는 인간의 이념의 산물입니다.

4. WCC는 사회선교에만 관심이 있다?

WCC안에는 선교와 전도, 기독교교육 이외에 거대한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과 직제’로 신앙과 일치를 강조하는 면이고, 다른 하나는 ‘삶과 일’로서 복음의 사회적 증언을 강조하는 측면입니다. 한국에는 WCC가 70, 80년대의 사회 상황과 관련해 인권과 민주화 등에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WCC의 사회선교적 측면만 부각되어 WCC는 사회선교에만 관심이 있다고 알려진 듯합니다. 그러나 WCC안에는 신앙과 일치를 강조하는 흐름과 복음의 사회적 증언을 강조하는 흐름이 팽팽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선교에도 두 흐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인권이나 민주화 같은 사회적 증언이고 또 하나의 흐름은 사회봉사(Diakonia)입니다. WCC의 사회선교에는 봉사의 면도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5. WCC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다?

사실 WCC의 신학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WCC는 회원교회들의 다양한 신학이 서로 대화하고 조정하고 공통의 신학적 견해를 찾아가는 문자 그대로 협의체(Council)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하면 WCC 고유의 신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WCC안에는 여러 신학노선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존재하고 엄청나게 보수주의적 신학도 존재합니다. 정교회의 신학은 한국의 보수신학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회원교회 중에는 복음주의 교회, 오순절 교회도 상당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6. WCC는 가시적 일치를 주장한다?

WCC가 추구하는 그 가시적 일치란 외형적 일치 혹은 구조적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WCC가 추구하는 가시적 일치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일치를 가시화 하자는 것이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도 하나가 되어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 있길 원하셨고 그 목적은 세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선교와 일치의 부름은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모태가 된 1910년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의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WCC가 추구하는 가시적 일치는 이런 선교적 목적 때문이지 결코 세계 교회의 외형적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7. WCC는 다원주의다?

WCC종교 간의 교리를 섞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WCC 밖에 있는 로마가톨릭교회도 그렇지만 WCC 안에 있는 양대 교회, 즉 정교회와 개신교도 결코 서로의 교리를 섞을 수 없다는 입장 때문에 교리적 일치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물며 종교 간의 교리를 섞는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WCC는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천도교, 불교, 기독교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함께 독립선언을 했듯이 정의와 평화, 그리고 인류의 화해를 위한 인류공동의 과제 때문에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협력과 다원주의는 다릅니다. WCC가 종교 간의 대화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선교를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타종교가 다수종교인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셋째는 인류의 평화나 생태계 보호와 같은 인류 공동의 과제를 위한 종교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종교 간에 협력을 하는 모습을 세속사회가 종교에 대해 깊은 신뢰를 하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WCC 준비와 관계된 기관 연락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본부(www.pck.or.kr)

110-47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사무총장실 Tel. (02) 745-4350 Fax. (02)6008-2982
기획국 Tel. (02) 745-4640 Fax. (02)6008-2982
- WCC 제10차 총회 관계 총회 본부 담당자
기획국장 변창배 목 사 02)745-4640 / 내선 9220
직 원 이선애 전도사 02)745-4640 / 내선 9224

※ WCC제10차한국준비위원회(www.wcc2013.kr)

110-74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04호
Tel : 070-7711-1144 Fax: (02)763-2015
E-mail : khc@wcc2013.kr
SNS : <http://www/facebook.com/groups/wcc2013>

※ 한국기독교협의회 (www.kncc.or.kr)

110-736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1호
Tel. (02) 745-4943 국제부 / 763-7323 일치·협력부

WCC 제10차 총회 관련 자료 소개

1. 홈페이지 자료

- 1)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www.pck.or.kr → 메인 화면 WCC 클릭→ WCC 자료실
- 2) WCC제10차한국준비위원회
www.wcc2013.kr→ 자료마당
- 3) WCC 공식 영문 홈페이지
www.oikoumene.org

2. WCC 주일예배 설교 자료집 (WCC 회원교단 제작)-전국교회발송

WCC 회원교단이 공동으로 제작한 WCC 제10차 총회를 위한 기도주일에 사용할 수 있는 7개의 설교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회 홈페이지 자료실 16번)

3. WCC 제10차 총회를 위한 기도회- 예배 모범안

WCC 제10차 총회를 위한 기도주일이나 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 모범 예배안입니다. 개 교회나 노회 및 각종 모임에 사용하실 수 있으니, 필요시 수정 가능합니다.(총회 홈페이지 WCC자료실 18번)

4. WCC 제10차 부산 총회 안내-PPT자료

WCC와 WCC 제10차 총회에 대한 소개와 안내 등 특강을 위한 PPT자료입니다.(총회 홈페이지 22번)

5. WCC 자료 CD

WCC 관련 모든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 ① WCC 제10차 총회를 위한 기도회-예배모범안(한글문서)
- ② WCC 제10차 총회를 위한 기도회-예배모범안(PDF파일)
- ③ WCC 주일예배 설교 자료집(한글문서)
- ④ WCC 주일예배 설교 자료집(PDF 파일)
- ⑤ WCC 성경공부 교재(한글문서)
- ⑥ WCC 성경공부 교재(PDF 파일)
- ⑦ WCC 기도주일 영상
- ⑧ WCC PPT 자료
- ⑨ WCC 소개 브로셔, 책자
- ⑩ WCC 제10차 총회 문서 모음
- ⑪ 학술 자료 모음
- ⑫ 동영상 모음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

2013. 10. 30 (수)~11. 8 (금)

부산 벅스코(Bexco)

WCC 제10차 부산총회 가이드북

발 행 인 김동엽 목사(WCC 제10차총회준비위원장)

역 은 이 이흥정 목사(사무총장)

기획 및 실무 변창배 목사(기획국장)

편 집 이선애 전도사

자 료 제 공 총회기획국 / WCC 제10차총회한국준비위원회

발 행 일 2013년 3월 15일(비매품)